

머 리 말

『향연』은 플라톤의 대화편들 가운데 『국가』 다음으로 가장 널리 읽히는 작품이다. 철학적 사고를 배태한 문헌으로서 그리고 문학 작품으로서의 탁월함이 그만큼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서술의 화려함도 그렇거니와 이면을 관통하는 구성의 복잡함과 치밀함이 그것을 말해 준다. 사랑을 주제로 다루는 이 대화편은 같은 주제와 관련된 플라톤의 다른 대화편들(『뤼시스』, 『파이드로스』)과 더불어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에 관한 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향연』이 후대에 끼친 영향사에 대해서는 알렌(R.E.Allen)이 잘 조망해 주고 있어서 그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이 대화편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대신한다.

“서양에서 이 대화편의 영향은 인문학의 폭만큼이나 넓다. 원전 연구의 자료로서 이것은 샘이 아니라 거대한 강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XII권에서 신학(여기서 신은 인식의 궁극적인 대상일 뿐 아니라 욕망의 궁극적인 대상이기도 하다), 그리고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의 관조 이론은 『향연』의 디오티마에게 빚을 지고 있다. 플로티노스의 미에 대한 설명 역시 그렇다. 『향연』이 플로티노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중세 철학과 신학에(아우구스티누스와 보나벤투라, 아퀴나스에게) 끼친 간접적인 영향은 매우 컸다. 피키노(M. Ficino: 1443~99)는 『향연』에서 파우사니아스가 제시한 천상의 에로스와 범속의 에로스 간의 허술한 구별을 취하여, 여기에서 플로티노스에서 빌려온 것의 상당 부분을 결합시켜서 예술과 미의 상관 관계에 관한 이론을 주조해 냈다. 피키노의 이론은 미켈란젤로의 생각을 이끄는 길잡이가 되었고 르네상스를 부양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19세기 독일에서는 아리스토파네스와 낭만주의가 디

오티마의 이성주의를 능가했다. 술 취한 희극 배우의 승리는 『비극의 탄생』(이것은 『향연』의 거꾸로 된 부조리한 복사물이다.)에서 니체의 승인을 받는다. 니체 다음으로 프로이드가 나온다. 그는 욕망과 이성을 별거 시키고 마침내 성스러운(천상의) 에로스는 본질적으로 범속의 에로스임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디오티마가 범속의 에로스는 본질상 성스러운 에로스임을 선언했듯이 말이다.” (1991, 9쪽)

2005년 4월
정암학당에서 김인곤